



제주 코로나 확진자 5000명 눈앞

23일 오후 5시 기준 15명 추가돼 누계 4997명
오미크론 확진 폭증세… 감염 외부요인 급증

제주도내 코로나 19확진자가 24일 5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23일 오후 5시 기준 15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코로나 확진자는 총 4997

명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이날중 5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확진자 15명 가운데 4명은 파키스탄·몰디브·터키 등 해외 입국자이며, 도내 확진자와 접촉자는 4명, 타시도 확진자와 접촉자 3명,

2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위증증 환자는 0명이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6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도내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70명으로 늘었다. 해외 유입 49명, 국내 유입 21명이다. 제주도 인구 대비 코로나19 예방 접종 현황을 보면 1차 접종률은 86.4%, 2차 접종률 84.8%, 3차 접

를 46.6%이다. 18세 이상 1차 접종률은 97.8% 2차 접종률 96.4%, 3차 접종률 55.4%이다. 코로나19 백신 이상 신고 누적 건수는 화이자 7건, 모더나 2건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현재까지 이상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4997명 가운데 4864명은 격리 해제됐으며, 13명은 사망했다. 고대룡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장에
김진영 제주해경청 과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1일 해양경찰청 총경 승진임용에 따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에 김진영(사진) 제주해경청 경비안전과장을 인사 발령했다.

신임 김진영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제주해경서 3012함장, 서귀포해경서 5002함장, 해양경찰청 항공과장, 제주청 경비안전과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에는 서해청 완도해양경찰서장, 서해청 항공단장 등을 역임한 박제수 총경이 전임한다.

전임 황준현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도영기자



이사하기 좋은 때… 제주 전통 이사철 신구간 풍경

제주의 전통적인 이사철인 신구간을 맞아 23일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에서 이사업체 직원이 고층 사다리를 이용해 이삿짐을 옮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작년 중대재해 8건 발생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 실태 분석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총 8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3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월별로 중대재해를 매달 모니터링하며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2021년 중대재해는 전체 670건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는 668명, 부상은 107명이었다. 사

망자 668명 중 246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89건, 경남 70건, 경북 59건, 서울 52건 순으로 많았고 제주는 8건이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57곳(53%), 제조업 171곳(26%), 기타업종 142곳(21%)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05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01건(15%), 부딪힘 52건(8%), 맞음 49건(7%), 깔림 36건, 무너짐 22건,

감전 16건, 넘어짐 14건, 폭발 13건, 화재 11건 순으로 발생했다.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이번주 초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관련법률은 정의당 제출법안에 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부미현기자

“일감 몰아주고 인사는 부적정 처리”

도, 4·3평화재단 특별점검 업무 전반 지적사항 15개

제주4·3평화재단이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적정 운영으로 상급기관인 제주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4·3평화재단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가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2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점검 결과 4·3평화재단에서는 ▷조직·인사관리 5건 ▷예산·회계관리 2건 ▷계약관리 6건 ▷기타 2건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출판·인쇄 계약 관련 1개 업체(43%)와 집중 계약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에서 94~95%에 이르는 지원자 탈락 처리 ▷공무직 인사기준 없이 인사 발령을 단행 내부 불만 발생 ▷면허없는 업체와 보수공사 수의계약 ▷평화재단 관용차량 관리 소홀(차량운행 누적거리 등 불일치) ▷6일 초과 병가 신청시 진단서 미첨부 ▷제주도 보조사업에 광고비 지출 ▷설계 내역 없이 공사 실시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평화재단 전직원에게 알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벌일 것”이라며 “특히 올해 평화재단 계약·회계·재정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작년 제주해역 해양오염사고 15건

선박 연료유 등 2400ℓ 유출

지난해 제주 해역에서는 15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해 2400ℓ에 달하는 선박 연료유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1일 ‘2021년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2021년 제주 해역에서는 15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해 선박 연료유 2400ℓ가 유출됐으며, 이는 2020년보다 발생 건수는 6건, 유출량은 1600ℓ 증가했다.

제주 해역 해양오염사고는 2017년 29건에 7288ℓ, 2018년 13건에 3만1363ℓ, 2019년 23건에 1만7874

ℓ 등이 발생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어선의 출입이 빈번한 제주시 한림항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침수 6건, 전복 3건, 침몰 1건 등 어선 해난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주해경청은 동절기에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집중됨에 따라 해양오염 예방과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구상이다.

제주해경청은 복합적인 사고 상황을 대비해 배출방지 중심의 방제 훈련을 실시하고 추자도·우도 등 원거리 해안 방제지원 보강과 해양자율방제대와의 교육·훈련 협업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EZ내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나포

서귀포해양경찰서는 EEZ(경제적 배타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선적 유망어선 A호(290t·승선원 11명)를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우리 측

EEZ에서 허가 없이 갈치 약 100kg을 잡은 혐의다.

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6시25분쯤 차귀도 서쪽 122km(어업협정선 내측 37km) 해상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A호를 나포해 화순항으로 압송했다. 백금탁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조생 4년생
감평(레드향) 3,4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 3,4년생, 남진해 3,4년생
부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애월읍 상귀리 716번지 870평

성전온주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2년생
감평(레드향) 1,2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3690-2453, 010-5676-8820

감귤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니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오하라베니(궁천변이치),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명자묘목(1000본 이상)

오하라베니
자연종묘 착과모습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술로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천혜향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요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반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 굴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굴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 8년생
·레드향(무독) 1, 4년생	·궁천 변이치(오하라베니)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림조생 5년생	·황금향 1, 4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